

건강 검진에서 발견된 단순 신낭종과 신기능 이상의 연관성

한림의대 내과, 가정의학과*, 문준호*, 박혜준*, 김성균, 서장원, 이영기, 오국환, 윤종우, 김형직
선천성 신낭종과 다발성 낭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 의미가 밝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순 신낭종은 매우 흔히 발견되는 이상이고,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에서는 그 빈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기능이 비교적 정상인 사람에게서 단순 신낭종의 존재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구들은 단순 신낭종이 신기능 이상의 초기 소견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단순 신낭종의 임상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단순 신낭종 외에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정된 성인을 낭종군으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같은 시기의 수검자 중 성과 나이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현성 단백뇨 혹은 현미경적 혈뇨를 포함한 사구체 질환, 신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신기능의 평가는 Cockcroft-Gault 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로 판정하였으며 세뇨관 기능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중 총 이산화탄소량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낭종군은 28명(남:여 = 15:13)이었고, 나이(평균±SD)는 47.4±8.3세였고, 대조군은 30명(남:여 = 16:14)이었고, 평균 나이(±SD)는 45.8±8.9세로 두 군 간의 성비와 나이 차이는 없었다.

2) 낭종군과 대조군사이의 혈청 크레아티닌과 이산화탄소량은 정상범위에 있었고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구체 청소율(평균±SD)은 각각 78.25±12.4와 86.9±13.44로 낭종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다($p=0.014$).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단순 신낭종과 신기능 이상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신낭종군은 주의 깊게 신기능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신낭종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양대학병원에서 posttransplantation diabetes mellitus의 임상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홍택원, 정성진, 유선진, 박준성, 이창화, 감경원, 감종명

신이식 환자에서의 당뇨병 발생과 관련된 원인 인자로는 신이식후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와 cyclosporine A(CsA)가 거론되며 이외에도 나이, 공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이식전 공복혈당, 특정한 HLA 표현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 등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신이식을 받은 570명 중 이식전 당뇨병이 없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이식후 당뇨병 발생 정도와 임상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식후 당뇨병(PTDM)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46.17세이었으며, 남자가 21명 여자가 13명이었다. 신이식후에 이식후 당뇨병 발생까지의 기간은 중간값이 2개월이었으며, 34명중에서 23명(67.6%)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26명(76.5%)이 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 이식후 당뇨병 환자의 나이는 34명 중 31명이 40세 이상이었으며 23명이 식이요법이나 경구혈당강화제를 사용하였으며, 11명은 insulin치료가 필요하였다.

이상에서 한양대학병원에서 신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이식후 당뇨병의 유병율은 6%이었으며 2/3이상 이식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 문헌고찰에 의하면 신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당부하 검사시에 많은 환자가 impaired glucose tolerance 또는 PTDM로 진단되며, 특히 Tacrolimus 사용시에 절반 정도에서 insulin의 분비가 감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이식후 6개월 동안에는 PTDM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